



총회세계선교부 파송으로 칠레(1995~1999년), 필리핀(2006~2009년)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0년 페루선교회에 영입되어 서울동일교회의 주 후원으로 파송되어 페루 뿌갈빠에서 호산나 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Rev. Jeong Wha Park |**

🏠 Av. Centenario 1128, Pucallpa, Ucayali, Perú

☎ 국가번호(51) 61-57-3322(학교)

☎ (51) 9424-808-50(박정화)

✉ florespark61@gmail.com(박정화) / 🌐 www.hosanna.edu.pe



뿌갈빠(Pucallpa) 호산나 소식

늘 기도해 주시며 페루와 뿌갈빠를 사랑해 주시는 교회들과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덕분에 주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벌써 이번 학기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 5, 6월의 호산나 학교는 더욱 분주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육활동들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열기도 함께 더 하여졌던 시간이었습니다.

4월에는 부모 교실이 3주간에 걸쳐 있었고, 5월에는 어머니날이, 6월에는 아버지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4월의 초중등학교 학부모 초청수업, 5월의 유치원 주간 부모 참관 수업, 7월 첫주의 유치원 축제 등으로 때를 따라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모든 일정들에 기꺼이 학부모들이 함께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가 단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교가 아니라 부모를 위한 교육을 함께 펼쳐야 하는 곳임을 매 순간마다 실감하게 됩니다. 선교학교인 호산나에서 이것이 더욱 전도와 복음선포의 기회가 되고, 학부모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 각 가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호산나의 소리 (La Voz Hosanna) 13호

매일 아침마다 찬양으로 열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되는 이곳이지만, 이곳의 아이들이 정말 주의 말씀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등학교는 과목이 15개나 되고, 각 학교마다 경쟁도 치열하여 학업에서도 앞서 나아가는



학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성경적으로 분명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이 그저 교과서 회사들과 각 과목 저자들의 세속적 관점과 영적 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늘 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호산나의 성경적 교육을 위한 기도를 늘 부탁드립니다. 늘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발견하고 지원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출간하는 호산나학교의 소식지 La voz Hosanna (호산나의 소리)의 이번 학기 호에 실린 한 학생의 글이 조금은 지친 저와 교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호산나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더욱 가르칠 힘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i Soy obra Suya. Y eso, lo sé muy bien!*



“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랍고도 귀하게 저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 시편 139편 14절.

때로는 제 자신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보다 부족한 점이나, 제가 아닌 모습에 더 집중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그건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소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놀랍고 귀한 존재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시선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면,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 깊은 생각, 진실한 감정,

그리고 사랑하고 창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저의 시작이며, 저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누가 저를 만드셨는지를 생각할 때,  
 저는 단지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섬세한 마음,  
 그리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저를 더욱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불안하거나 흔들릴 때에도 평안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을 때면, 저는 조용한 시간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안에서 다시 제 진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 중등 3A, 마티아 발렌티노 (Mathia Valentino Soria Maylle) -



2025-1학기를 마무리 하며



주님의 은혜로 2025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는 요즈음, 학교는 다시 페루를 상징하는 두 가지 색인 빨강과 흰색이 조화된 장식들로 가득하고, 7월 첫 주간에 기말고사를 마친 후에는 독립기념행진 연습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1821년 7월 28일, 300여년 동안 이어지던 스페인 식민시대의 종식과 독립을 선언했던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페루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미소 짓는 해변, 비옥한 땅, 눈 덮인 고산.. 등 페루의 풍광과 민족성을 자랑하는 'Es mi Peru' (나의 페루)라는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55개의 민족집단과 48개의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하나된 '페루'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나라는 유치원 작은 아이 때부터 문화와 자연, 풍속과 음악, 음식 등에서 '다양성 속의 하나'를 이루는 페루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배웁니다.



1학기의 마지막 시간이 독립기념행사와 맞물리는 것은 호산나의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페루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요한(딤후 6:18)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전하며 페루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도록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페루선교 40 주년, '이순 기념관' 개관식**



이번 1학기에 페루선교 40주년기념행사를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배웠기 때문인지 만날 때마다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아침 인사를 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다는 손님들을 기다리며, ‘내일이 그날이죠?’, ‘오늘이 그날이죠?’ 라고 묻곤 하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궁금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더니, 그곳에서 오신다는 손님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6월 11일을 고대하며 기다렸었습니다. 너무 짧은 방문일정으로 금새 리마로 돌아가셔야 했던 한국 목사님들과 권사님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기다리며 찾기도 하였지만, 이번 페루선교 4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이순 기념관 개관식을 통하여 호산나 학교가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귀한 학교인 것을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황윤일·구장이 선교사님의 페루와 뿌갈빠 도착부터 호산나 학교의 현재까지를 나름대로 연극으로 꾸며 발표하였던 아이들은 그날의 흥분을 여전히 감추지 못하고 있는 듯 ‘호산나의 소리’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기념식에서 페루선교회의 회장님이신 신문수 목사님과 총무님이신 윤마태 목사님을 통하여 페루선교의 역사와, 특별히 이순 목사님의 헌신과 뿌갈빠와 호산나학교를 향한 사랑과 기도에 대하여 배운 아이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새겨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먼 뿌갈빠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호산나 학생들을 하나님의 선교로 도전하여 주신 페루선교회의 신문수 목사님, 윤마태 목사님, 김훈 목사님과 한은주, 최준순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학교를 기억





하여 주시고, 이번 방문팀 편에 ‘어린이 전도용 복음팔찌’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귀한 재료들을 준비하여 보내주신 동일교회선교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뿌갈빠 공항의 페루선교회 방문팀, 가방 가득 실어다 주신 선물들



### 기도부탁드립니다

1. 호산나의 모든 교육의 기준이 성경말씀을 기초로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주시고, 교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에 더욱 깨어있게 하소서.
2. 뿌갈빠 지역의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서가며 미래의 지도자를 양육하게 하시고, 호산나 학교와 각 교회들에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3. 뿌갈빠 1, 3 교회, 감뽀베르데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학교 교사들, 호산나 학교 교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ISOM (International School of Ministry)이 8월에 시작됩니다. 이번에 참여할 예정인 40여명이 이 여정을 끝까지 마치며 주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도록 이끌어주소서.
4. 호산나 학교의 2학기를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들과 직원들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소서.

